Eugene's FICC Update

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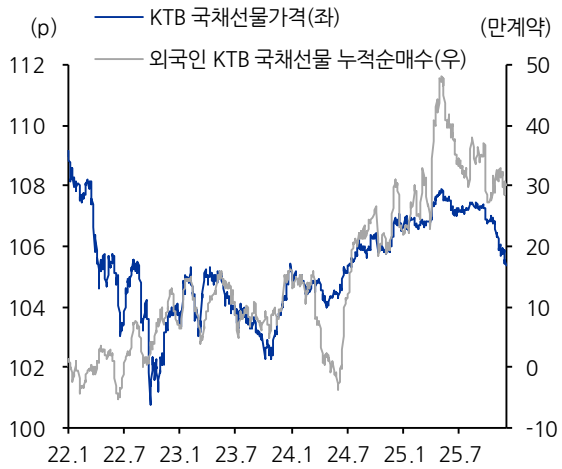
Fixed Income 김지나_ 02)368-6149_ jnkim0526@eugenefn.com Economist 이정훈_ 02)368-6138_ jhoonlee@eugenefn.com

Fixed Incom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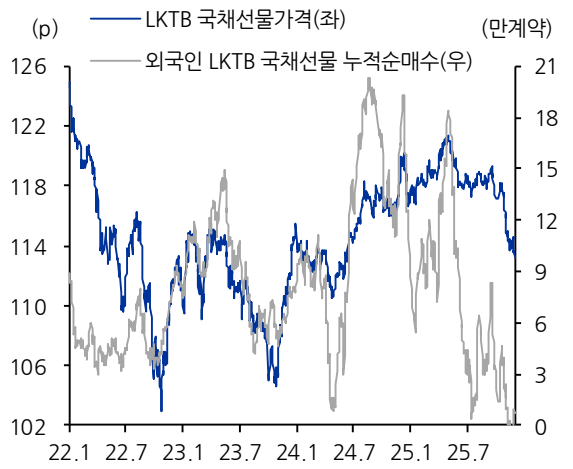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bp, 틱)

		12/1일	1D	1W	YTD
국내 채권	한국 국고채 3년물	3.045%	5.4	14.1	44.9
	한국 국고채 10년물	3.387%	4.3	9.8	53.2
	장단기금리차(10년-3년,bp)	34.2	35.3	38.5	25.9
	3년 국채 선물(KTB)	105.39	-17.0	-42.0	-126.0
	10년 국채선물(LKTB)	113.13	-53.0	-105.0	-379.0
해외 채권	미국채 2년물	3.531%	3.0	2.4	-70.9
	미국채 10년물	4.088%	7.2	2.4	-48.5
	장단기금리차(10년-2년,bp)	55.7	51.5	55.7	33.3
	독일국채 10년물	2.750%	6.0	6.0	38.7
	호주국채 10년물	4.555%	3.6	11.2	18.7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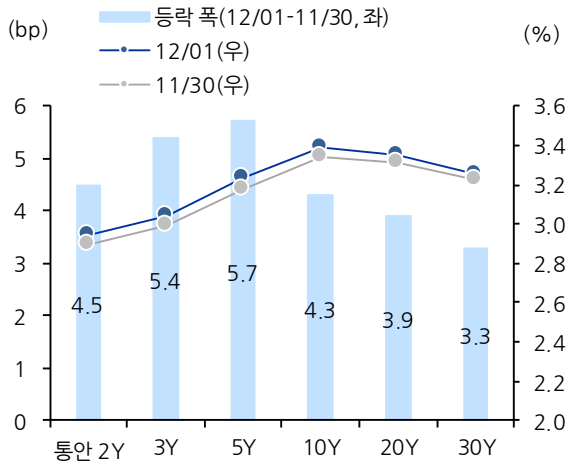
외국인 3년 국채선물(KTB) 수급



외국인 10년 국채선물(LKTB) 수급



일간 금리 등락 폭 & 커브



국내 채권시장 동향

- 국내 채권시장 전구간 큰 폭으로 약세 마감. 국고 3년 3% 다시 상회.
- 개장 직후 발표된 국내 11월 수출 호조로 금리 상승했으며, 이후 일본 금리 상승으로 아시아 금리의 전반적인 상승 시작.
- BOJ 총재가 다음 금정위에서 인상의 장단점을 검토 및 조정은 너무 늦거나 이르지 않아야한다고 밝히면서 일본 인상이 기정사실화됐기 때문. 외국인 국채선물 순매도도 이어지며 금리 상승 견인.

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

- 미국 채권시장 장기물 중심 약세 마감. 일본 금리 급등 영향.
- BOJ 총재가 연설을 통해 이번 금정위에서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면서 글로벌 금리 상승. 아시아 장중 금리 뿐 아니라 유럽, 미국 금리까지 전부 오르며 장기물 투매 나타남.
- ISM 제조업 부진에도 불구하고 금리 상승세 지속. 160억달러 규모의 IG 등급 회사채 발행도 이어지면서 금리 상승을 견인.

자료 출처: 연합인포맥스, Refinitiv, 유진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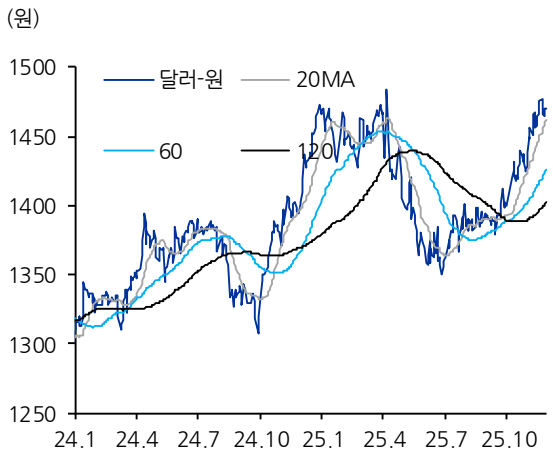
본 자료는 참고용 자료일 뿐이고, 특정주식에 대한 투자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닙니다. 본 자료는 담당자가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자료나 정보에 근거하여 작성되었지만,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.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고객의 투자의사 결정은 고객 자신의 판단과 책임아래 이루어져야 하고,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존하여 행하여진 일체의 투자행위의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을 것임을 밝힙니다. 아울러 본 자료는 당사 고객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/전송/인용/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

FX & Commodity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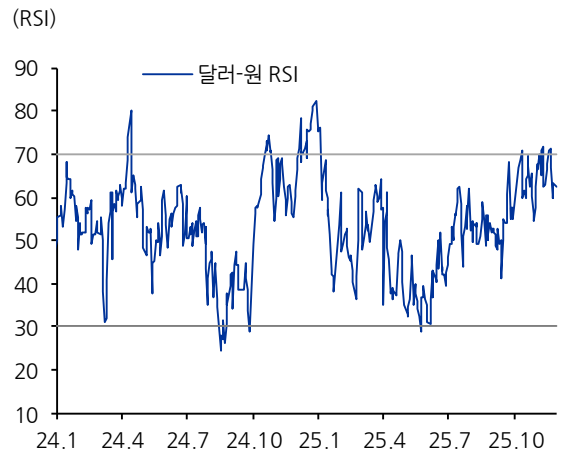
(단위: %, $)

		12/1일	1D	1W	YTD
환율	원/달러	1,469.90	0.0%	-0.5%	-0.2%
	달러지수	99.41	0.0%	-0.8%	-8.3%
	달러/유로	1.161	0.1%	0.8%	12.1%
	위안/달러(역외)	7.07	0.0%	-0.4%	-3.6%
	엔/달러	155.45	-0.4%	-0.9%	-1.1%
	달러/파운드	1.321	-0.2%	0.8%	5.6%
	헤알/달러	5.36	0.4%	-0.6%	-13.4%
상품	WTI 근월물($)	59.51	1.6%	2.5%	-17.0%
	금 현물($)	4,237.53	0.6%	2.5%	61.5%
	비트코인($)	85,760.00	-7.2%	1.4%	-8.9%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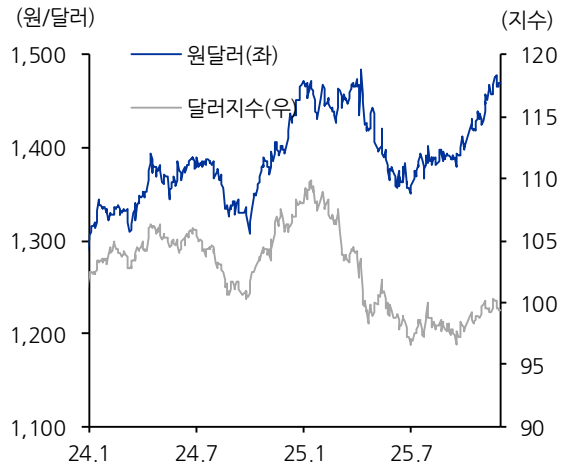
달러-원 환율 및 이동평균선



달러-원 환율 상대강도지수



달러-원 환율 및 달러인덱스 동향



원달러 환율 동향

- 달러-원은 서울 외환시장에서 -0.70원 하락한 1,469.90원에 마감. 야간거래에서는 1,468.00원 마감.
- 지난 주말 달러 약세를 반영해 1,467원대에서 하락 출발한 달러-원은 장 초반을 저점으로 반등하기 시작.
- 이날 기재부는 주말 중 보건부, 한은 등과의 수급 안정화 논의가 있었다고 발표했고, 국민연금의 외환스왑 연장도 발표하면서 상단은 제한.
- 하지만 이날 오전 우에다 BOJ 총재의 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 속에 엔화가 강세를 보였음에도 달러-원은 별다른 수혜 없이 상승세를 지속. 외국인은 국내 주식시장에서 400억원 가량 순매수.

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

- 달러 인덱스는 엔화 강세 속 하락.
- 전일 일본 시각 오전 중 우에다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엔화는 강세 시작. 아시아 장중 155엔대에 머물렀던 달러-엔은 미국 장 개장을 앞두고 154.6엔 선까지 하락했으나 이후 반등.
- 11월 ISM 제조업지수는 48.2로 시장 예상치(48.6)을 하회. 신규주문이 47.4로 7월 이후 최저치로 하락했고, 10월 반등했던 고용지수도 44.0으로 하락. 관세 여파가 지속되는 가운데 연방 정부 셧다운이 일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.